生命保險産業의 效率性 分析과 業務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羅 東 敏

우리나라 生命保險産業은 과거 40여년간의 비약적인 外形成長에도 불구하고 內的으로는 人爲的으로 조성되어 온 寡占的 市場體制下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金融의 自律化·開放化·國際化 時代를 맞이하여 對外競爭力 強化와 內部效率性 提高를 위한 본격적인 硏究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섰다. 本 硏究는 計量的인 技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生命保險産業의 效率性에 관한 實證分析을 시도하여, 內在하고 있는 問題點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發展方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規模의 經濟性(economies of scale) 분석결과 생명보험회사들이 營業人員에 대한 過多한 投資에 상응하는 規模擴大나 효과적인 經費節減을 이루지 못하여 내부적으로 過多人力의 사용으로 인한 經營의 非效率化가 초래되고 있으며, 代理店을 통한 店鋪政策에서도 規模의 非經濟性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範圍의 經濟性(economies of scope)과 관련해서는 主業務인 保險營業業務와 附帶業務인 資産運用業務간에 費用補完性(cost complementarity)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업무에 대한 積極的인 投資와 效率的인 管理로 業務多邊化를 추진하여 범위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 밖에 本 論文의 分析을 통하여 도출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문제점으로 낮은 收益力, 低生産性, 財務構造의 不健全性, 非效率的인 資産運用, 消費者保護裝置의 未備 등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業務 및 制度改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 序 論

우리나라의 生命保險産業은 해방 이후 40여년간 고도경제성장과 정부의 강력한 保險産業育成政策, 그리고 生命保險會社들의 적극적인 판매전략에 힘입어 收入保險料, 總資産 등 양적인 측면에서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시현하여 93년말 현재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6위의 生命保險大國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 못지않게 생명보험산업은 危險管理를 통한

筆者 : 本院 硏究委員

* 本 硏究의 草稿에 대하여 귀중한 論評을 주신 柳一鎬, 崔範樹, 高英先 博士께 깊이 감사드리며, 資料蒐集과 原稿整理에 많은 도움을 준 盧載烈, 全鍾寓 主任硏究員과 朴鉉淑 主任硏究助員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本稿에 나타난 어떤 見解나 誤謬도 筆者의 것임을 밝혀 둔다.

국민생활의 안정은 물론 金融資源의 調達 및 運用 등 금융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생명보험산업은 금융산업에서의 비중 증대와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못지않게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온 寡占的인 市場構造下에서 경영전반에 걸친 非效率性과 低生産性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즉 최근까지 시장내에서 商品開發, 保險料率 등을 수단으로 하는 實質的인 競爭은 제한되어 왔고 契約者를 위한 利益還元이 부진하였으며 營業組織, 契約管理, 資産運用, 그리고 契約者서비스 등 內部經營의 질적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명보험산업은 금융의 自由化·國際化·開放化 추세에 따라 금융산업의 한 부문으로서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이 우리나라 금융 및 경제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 위한 役割과 位相을 재정립할 시점에 서게 되었다.

本 論文은 이러한 생보산업 내외의 환경 및 여건 변화 속에서 생명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본 연구는 計量的 技法을 활용한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여 생명보험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괄적인 發展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생명보험산업의 經營 現況 등을 살펴봄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을 概觀하고 있으며, 또한 經營의 效率性 分析을 시도하고 분석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제Ⅲ장은 제Ⅱ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發展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제Ⅳ장은 要約 및 結論을 담고 있다.

Ⅱ. 生命保險産業의 效率性 分析

1. 金融機關의 效率性 分析方法

金融機關의 效率性이란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정도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일정기간 투입된 生産要素를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하였는가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1] 생산활동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成長性, 收益性, 生産性, 經濟性 등 企業性에 비중을 둔 평가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알아볼 수 있으나 이러한 기업성을

1) 기존의 효율성은 投入-産出 空間에서 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효율성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成長性, 安定性 등의 要素까지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효율성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李在亨·劉承昊(1994), 崔鍾元(1994) 등을 참조.

중시한 평가요소 이외에 保險産業의 公共性을 고려하여 본장에서는 健全性을 효율성 평가요소에 추가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의 일부분으로서 保障 및 金融機能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생명보험산업은 그 비중과 역할에 따라 시대별로 효율성이 다소간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 왔다. 60년대에는 정부가 경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활하고 적정한 資金의 調達과 配分을 중요시하고, 금융기관들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경영목표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생명보험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효율성 평가기준은 公共性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에 들어서도 경제개발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금조달과 배분의 통로를 活性化하고 多樣化하려는 의도로 제2금융권의 창설과 확대를 유도하였으나 여전히 공공성에 치우친 경영목표는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실물경제의 발전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제도는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성하에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經營內實化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전반의 민주화 추세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개방압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自律化·開放化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內實化·自律化·開放化 추진에 따라 경영목표도 자연히 변화하여 공공성 못지않게 성장성, 생산성 등 일반기업이 중요시하는 효율성 판단요소가 생명보험회사에도 강조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금융기관으로서 생명보험회사의 企業性과 公共性을 함께 고려하여 成長性, 收益性, 生産性, 安全性 및 經濟性 등의 指標를 통해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2. 成長性 分析

가. 成長率 推移

1990~93년 사이 전체 생보산업의 성장률은 1980~89년 사이와 비교하여 급속히 둔화되었음을 〈表 1〉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별 成長推移를 살펴보면, 기존 6개사의 성장률은 産業平均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신설사들은 과거 80년대보다도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收入保險料 및 新契約의 유입이 많고 이것이 總資産을 급속히 증대시키므로 외형적인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신설사의 비약적인 외형성장은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서 初期段階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신설사들이 質的인 優秀性을 기반으로 기존 6개사에 비하여 두드러진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表 1〉 會社別 年間 平均成長率 推移(1990~93)

(단위 : %)

	기존6개사	신 설 사				전 체
		전국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	
총 자 산	14.0	42.0	49.8	47.4	56.1	17.4(41.6)
보 유 계 약	20.4	91.1	53.8	86.2	89.0	26.7(42.2)
신 계 약	15.5	75.9	50.3	64.5	89.8	23.8(38.5)
수입보험료	9.7	32.7	49.6	40.5	80.3	14.5(39.2)

註 : ( ) 안은 1980~89년 평균임.
기존 6개사는 대한, 제일, 삼성(구 동방생명), 흥국, 동아생명 및 대한교육보험임.

따라서 資料의 比較可能性과 信賴性을 고려하여 신설사를 제외한 생보산업의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90년대에 들어서 외형적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商品開發 및 價格自由化 등 보험산업의 자율화 추진에 힘입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및 가격 제시가 가능해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內部經營의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험고유상품인 보장성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타금융부문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완만하나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나. 成長率 決定要因

보험산업의 성장률에 대한 巨視的인 分析은 생보산업으로의 資金 流出·入을 통한 국가경제와의 관계, 금융시장의 제변수와의 相關關係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는 과거의 計量的 硏究에서 생명보험성장률과 有意的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제적 변수들 중 信賴度가 높은 것을 택하고, 생명보험성장률의 주요한 決定變數로 알려진 社會的 變數(보험에 대한 인식), 競爭的 變數(금융기관간의 경쟁), 保險行政的 變數(경쟁원리 도입)들을 추가적인 說明變數로 하여 線型多重回歸方程式을 最小自乘法으로 추정한다. 이 회귀방정식에서 從屬變數인 生命保險成長의 代理變數로서 총자산과 같은 외형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변수를 택할 수도 있으나, 외형적인 면뿐만 아니라 收益力과 같은 질적인 면도 고려하여 수입보험료를 성장의 대리변수로 택하였다. 또한 이 회귀식에서는 1次 動的調節過程(first order dynamic adjustment process)의 假定을 조사하기 위하여 前期 收入保險料(PW_{-1})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생명보험산업의 成長決定要因에 관한 회귀방정식은 식 (1)에 표시되어 있고 그 추정결과는 〈表 2〉에 나타나 있다.

〈表 2〉 生命保險産業의 成長決定要因

	모형 Ⅰ	모형 Ⅱ
β_0	0.0736(1.8702)*	0.0835(1.8107)*
β_1	0.0622(5.3332)**	0.0628(5.3839)**
β_2	0.0007(0.0158)	−0.0076(−0.4079)
β_3	−0.0052(−6.2704)*	−0.0052(−6.3161)**
β_4	0.0055(5.1101)**	0.0056(5.1697)**
β_5	0.0010(2.1415)*	0.0011(2.4927)**
β_6	−0.0018(−0.0778)	−0.0023(−0.9480)
β_7	−0.2507(−1.1169)	−0.2668(−1.1873)
R^2	0.99577	0.99580
D-W	2.50252	2.60347

註 : ( ) 안은 t값.
**는 1%의 유의도임.
*는 5%의 유의도임.

$$PW = \beta_0 + \beta_1 Y + \beta_2 FD + \beta_3 Inf\ Exp + \beta_4 Comp + \beta_5 Int + \beta_6 Educ + \beta_7 PW_{-1} \quad \cdots\cdots(1)$$

PW : 1인당 수입보험료, *Y* : 1인당 국민소득, *FD* : M2/GDP(모형Ⅰ) 혹은 M1/M2(모형Ⅱ), *Inf Exp* : 과거 7년간 인플레이션率의 移動平均값, *Comp* : 생명보험산업내 新規進入 會社數, *Int* : 會社債收益率 − 인플레이션率, *Educ* : 國民總生産額에 대한 敎育費

所得上昇은 직접적으로 보험수요 증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어 決定變數로 포함시켰는바, 〈表 2〉로부터 계수 β_1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正의 값을 보여 주어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Y)의 상승이 생명보험의 購買力을 높이며 동시에 소득상승으로 증가된 人的 資本(human capital)의 損失補塡을 위한 보험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보험수요의 증대를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金融發展이 보험산업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金融發展(financial development; *FD*)의 代理變數로서 우리는 두가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通貨變數로 널리 사용되는 M2/GDP를 대리변수로 택할 수 있다. 금융발전을 통하여 경쟁이 심화되면 각 회사들은 價格競爭力(保險料率의 改善)과 非價格競爭力(서비스의 擴大와 多樣化)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보험수요가 증대되고 보험산업은 외형성장을 기록함으로써 β_2는 正의 값을 가질 것이다.[2] 또다른 금

2)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商品, 資産運用, 料率 등에

융발전의 대리변수로 M1/M2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변수는 全金融機關에서 공급되는 金融資産의 複雜性의 代用物로 간주될 수 있다. 금융발전이 深化되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어 非貨幣(noncurrency)형태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M1/M2의 비율은 감소되며 보험수요는 증가하고 보험산업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다. 分析結果에 따르면 M2/GDP를 금융발전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모형 Ⅰ에서 β_2는 正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M1/M2를 금융발전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모형 Ⅱ에서는 β_2의 값이 負로 나타나 우리의 推論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모형에서 낮은 t값으로 인하여 獨立變數인 金融發展과 從屬變數인 保險産業成長과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有意度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消費者는 豫定利子率을 기초로 하여 가격이 결정된 생명보험상품을 구입할 때 과거 인플레이션率을 토대로 미래의 인플레이션率을 예측하며 이에 의하여 보험상품의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實質金利의 하락을 유도하여 보험수요를 감소시키므로 보험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3] β_3는 분석결과 負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예측인플레이션率의 상승은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保障性商品에 비하여 長期貯蓄性商品이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수요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외국에 비하여 매우 클 것이며, 두 模型下에서의 분석결과에서도 변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4]

보험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保險行政的 變數로는 市場競爭原理의 도입(competition; *Comp*)을 고려하여 産業內 新規進入者數를 설명변수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는바, β_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正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보험산업의 對內·外 開放政策과 이에 따른 시장경쟁원리의 점진적 도입은 保險料率의 引下와 서비스 제고 등 價格 및 非價格 부문의 개선을 유도하여 보험수요를 증대시키므로 보험산업의 외형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5]

서 회사별 구분 없이 거의 劃一的으로 운용되어 보험회사들은 價格外的인 競爭力 강화에 치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점점 개선되고 있다.

3) 保障性保險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貯蓄性保險은 은행상품 등 타금융상품과 직접적으로 비교·경쟁될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클 것이다.

4) 보험료계산의 基礎要素가 되는 豫定利率은 保守的으로 정해지고 利源分析에 의하여 배당의 형태로 계약자에게 환원된다. 그러나 無配當商品이 92년 8월부터 허용되어 보험회사와 보험수요자간의 期待利率에 대한 예측능력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예측 등 利率部分算定이 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주고 이는 需要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市場金利連動型 보험상품이나 인플레이션헤지형 보험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5) 보험산업의 국내·외 개방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보험수요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個別企業當 需

보험료의 割引要素(discount factor)로 사용되는 豫定利子率은 보험상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보험수요 및 이에 따른 보험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회귀식 (1)에서 보험상품의 예정이자율의 대리변수로서 實質利子率(real interest rate; *Int*)을 사용하였으며, β_5는 正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6] 純保險料는 豫定死亡率과 豫定利子率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다. 豫定死亡率을 고정하고 순보험료와 예정이자율과의 관계를 보면, 純保險料는 예정이자율에 할인되어 계산되므로 서로 負의 相關關係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대리변수인 실질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保險料率도 낮아지므로 궁극적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될 것이며 분석결과도 同一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保險의 認識度와 保險需要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敎育水準을 보험 인식도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는바, β_6은 예상과는 달리 負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험의 수요가 거의 募集人에 의하여 창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나 認知度의 상승에 의하여 보험을 구매하기보다는 募集人의 강제적인 권유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험의 수요증대가 교육수준의 향상과 관계없을 가능성이 있다.[7][8] β_6는 비록 統計的 有意性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負의 값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推論을 뒷받침하고 있다.

분석결과로부터 所得向上과 行政規制緩和 및 實質利子率上昇은 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결정변수로 작용하며 인플레이션은 보험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다양화·전문화 및 서비스 개선 추세는 보험산업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며 교육수준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거 寡占的 市場下에서 가격 및 비가격경쟁이 제한되었고, 保險購入이 보장필요성에 따른 自發的인 구입보다는 募集人들의 무리한 緣故販賣로 인한 強制購入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장체제가 경쟁적으로 변모하고 募集體制 등 販賣채널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들 변수 역시 보험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決定要因으로 부상할 것이 예상된다.

要의 增加와 收益性의 增大는 불확실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6) 이론적으로 名目利子率은 實質利子率에 인플레이션率을 포함시킨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1年滿期定期預金을 명목이자율로 사용하여 실질이자율을 구하였다.

7) 외국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에 대한 認知度가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수요가 증가하게 됨을 여러 논문의 분석결과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募集制度의 改善 등 보험산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면 β_6의 부호는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8) 또한 敎育水準(*Educ*)을 國民總生產額에 대한 敎育費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所得增加에 따라 상승하여 교육수준의 說明力을 國民所得(*Y*)에 빼앗기는 多共線性(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이 경우 β_6의 값이 負로 나타날 수 있다.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國民所得이 계속 높아져 갈 것이고 금융환경변화에 대처하여 行政規制緩和 및 보험산업의 자율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할 것이고 또한 정부는 과거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것이므로 이러한 要因들은 보험산업의 계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市場利子率에 의하여 결정되는 예정이자율이 長期的으로 下向安定化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명보험수요의 증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장추이를 전망하면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은 어려울 것이나 持續的이며 質的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져 규모면에서 미국, 일본 등 보험선진국 수준에 점차 접근하여 갈 것으로 예견된다.

3. 收益性 分析

생명보험회사의 總營業收支는 일반기업의 經常利益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총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생명보험회사의 綜合的인 資金調達力 및 運用部門의 收益性을 포괄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총영업수지는 보험시장 개방 초기인 1990년에 비하여 지방사를 제외하고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전국사나 합작사들은 적자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사는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향후 財務構造의 健實化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業務別 收支構造를 살펴보면 보험영업에서는 保險金支給 등의 지출요인이 보험료수입 등의 수입요인보다 항상 많아 慢性的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還給金이 보험금지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表 3〉 業務別 收支構造

(단위 : 백만원)

		기존6개사	신 설 사				전 체
			전국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	
1990	보험영업수지	−2,651,853	−42,615	−42,367	−39,714	−8,921	−2,785,471
	자산운용수지	2,743,230	32,618	36,366	22,063	3,723	2,837,999
	영업외수지	−25,093	−3,285	−3,790	−1,932	−3,311	−37,410
	총영업수지	66,284	−13,282	−9,791	−19,583	−8,509	15,118
1993	보험영업수지	−3,682,584	−225,730	−133,942	−115,546	−9,871	−4,167,684
	자산운용수지	3,889,748	244,404	134,603	135,815	8,181	4,412,752
	영업외수지	−32,867	−1,478	−27,578	−1,032	−2,351	−65,307
	총영업수지	174,297	17,186	−26,917	19,237	−4,041	179,761

있어 不完全 契約에 따른 비용증가가 보험영업부문에서 赤字增大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또한 실제사업비가 過當募集競爭 및 이에 따른 失效·解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예정사업비를 초과함으로써 보험영업에서 적자폭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보험영업부문의 수지개선을 위하여 募集體系改善, 約款制度의 明瞭性 確保 등 계약유지의 充實度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新契約費 및 維持費에 대한 비용절감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보험영업에서의 적자부분이 축적된 장기자금인 운용자산의 투자수익으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안일한 자산운용을 지양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선진화된 자산운용기법의 구사가 요구된다.[10]

4. 生産性 分析

生産性은 투입된 生産要素와 이에 의하여 산출된 生産物을 비교하여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産出側面에서 생산성을 살펴보면 〈表 4〉에서 93회계연도의 1人當 總資産은 1억 4,410만원으로 90회계연도에 비하여 31.4% 증가하여 업계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회사별로 살펴보면 기존 6개사의 성장률이 이 기간중 101%나 되어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신설생보사들은 1993년 현재 기존사들에 비하여 20~30% 정도의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收入保險料, 新契約額 및 總利益도 비슷한 결과 및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신설보험사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店鋪를 기준으로 생산성을 분석하여 보면 店鋪當 總資産은 〈表 5〉에서 보는 것처럼 90회계연도에 비하여 93회계연도에는 16.3%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수입보험료, 신계약액 및 총이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會社別로 살펴보면 기존 6개사들은 業界 平均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을 시현하고 있으나 신설생보사의 경우 전국사와 합작사들은 생산성이 1990년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店鋪網을 확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방사와 외국사는 무리한 점포확대를 자제하면서 성장을 이루어 외형적으로

9) 보험영업비용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支給保險金, 保險契約準備金, 事業費 순으로 각각 70%, 16.6%,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還給金의 비중은 지급보험금 중 80.8%를 차지하여 전체 보험영업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 93회계연도 우리나라의 생보산업의 資産運用收益率은 11.7%로 미국의 8.6%(資本利得을 제외한 稅前收益), 일본의 7.4%보다 높으나 金利差, 資本市場의 收益率差 등을 고려할 때 운용수익률이 이들 국가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국내생보사들의 자산운용 효율성이 낮고 자율적인 자산운용이 외국에 비하여 제한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보험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資産運用業務의 先進化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表 4〉 1人當[1] 生産性 指標

(단위 : 백만원)

		기존6개사	신 설 사				전 체
			전국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	
1990	1인당 총자산	138.6	42.0	24.3	35.2	81.9	109.7
	1인당 수입보험료	68.4	35.8	16.5	26.8	29.2	56.7
	1인당 신계약액	1,031	401.2	295.9	381.2	696.9	845.0
	1인당 총이익	83.0	38.1	18.2	29.3	39.9	67.9
	수입보험료 /사업비(%)	8.3	16.3	8.3	8.4	1.3	8.6
1993	1인당 총자산	278.6	54.4	57.6	69.2	95.5	144.1
	1인당 수입보험료	112.5	37.9	39.0	45.7	52.5	69.0
	1인당 신계약액	2,156	988.3	707.8	1,041	1,460	1,301
	1인당 총이익	151.1	42.6	43.2	51.7	60.8	83.3
	수입보험료 /사업비(%)	7.0	5.5	6.8	5.7	2.8	6.6

註 : 1) 모집인뿐만 아니라 내근사원 모두를 포함.

〈表 5〉 店鋪當 生産性 指標

(단위 : 백만원)

		기존6개사	신 설 사				전 체
			전국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	
1990	점포당 총자산	4,062	4,458	826	3,401	2,207	3,718
	점포당 수입보험료	2,003	3,803	561	2,593	788	1,924
	점포당 신계약액	30,224	42,580	10,044	36,841	18,777	28,647
	점포당 총이익	2,432	3,803	619.2	2,836	1,076	2,302
1993	점포당 총자산	5,727	2,695	1,181	2,408	4,325	4,325
	점포당 수입보험료	2,519	1,880	880.3	1,590	2,376	2,072
	점포당 신계약액	44,309	48,966	14,510	36,241	66,079	39,055
	점포당 총이익	3,106	2,111	886.4	1,799	2,501	2,501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사의 경우는 높은 생산성 향상을 시현함으로써 適正店鋪 보유를 통한 營業戰略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생산성은 생산활동을 위한 要素의 投入과 産出物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 분석을 위하여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要素費用으로서의 事業費와 産出物인 收入保險料의 관계를 〈表 4〉에서 살펴보면 시장개방 초기인 90회계연도에

비하여 93회계연도의 생산성이 23% 정도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의 저하는 생보산업이 低成長期에 들어오면서 수입보험료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다가 개방 이후 시장규모에 비하여 많은 회사가 난립하여 과열경쟁으로 사업비의 지출이 급속히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國際競爭力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자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생산물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對應策이 요구된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신설생보사들의 생산성 하락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생산활동 초기에 적극적인 영업에 따라 要素費用의 投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산출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져 신설사들이 단시일 내에 기존 6개사의 생산성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健全性 分析

保險去來는 보험회사의 위험부담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부담이라는 代價關係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보험산업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보험료와 보험내용의 결정에 合理性과 公平性을 기하여 보험거래의 等價關係를 확보하도록 하고, 保險約款에 정한 보험금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財務構造의 健全性을 확보하여 支拂能力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적정한 責任準備金의 積立과 支給餘力(solvency margin)으로서의 剩餘金 留保라고 할 수 있으며, 1次的으로 장래의 지급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의 충실한 적립이 긴요하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豫定利率 등 기본적인 가정의 安定的인 豫測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통상의 가정하에서 산정한 책임준비금만으로는 장래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운용 및 기대위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충격을 완화하는 2次的인 지불능력의 확보가 필요한바, 이러한 완충작용을 하는 剩餘金을 支給餘力이라 하는데 생명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절에서는 2次的인 지불능력으로서의 지급여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11]

생명보험회사의 支給餘力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업무를 단순화하여 보면, 前期移越된 總資産(A)에 사업개시연도 초에 保險料(P)가 납입되어 회계연도중 운용자산으로서 투자운용되며, 保險金(C)은 회계연도말에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비 및 자산의 운용비용 등 諸費用(X)은 연도초에 지출되며 사업연도

11) 일반적으로 지급여력은 총자산에서 責任準備金과 其他負債의 합계액을 공제한 純資産, 즉 納入資本金, 資本剩餘金, 利益剩餘金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의 총자산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r로 가정한다면, 期末 總資產에서 總負債(L)를 공제한 회계연도말 사용할 수 있는 可用財源(M)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A+P-X)(1+r)-(C+L)\cdots(2)$$

期末 이용가능한 財源(M)은 책임준비금이 운용상 손실을 내거나 혹은 期待確率을 초과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2次的 支拂能力인 支給餘力(solvency margin)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다. 그런데 생보사의 실질적인 지급여력은 해당회사의 부채의 크기에 크게 의존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지급여력(M/L)을 식 (3)과 같이 총부채에 대한 이용가능재원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12)]

$$M/L=(A/L+P/L-X/L)(1+r)-(C/L+1)\quad\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3)$$

12) 식 (3)으로부터 보험회사의 負債額이 실질적인 支給餘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의 대부분은 責任準備金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보험회사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잣대인 식 (3)만으로는 각 생보사의 지불능력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 즉 일부 기존사는 純保險料方式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존보험사나 신설사들에 비하여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높은 지불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식 (3)에서는 이러한 충실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이 부채의 증가로 나타나 純資產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급여력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식 (3)은 지불능력의 두가지 중요한 요소(책임준비금의 충실한 적립과 순자산의 유보) 중 순자산에 초점을 맞춘 식이며, 이 식에서는 일부 기존사의 지불능력이 다른 기존사나 신설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低評價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보험사의 지불능력문제는 해당회사가 특정시점에서 부채를 변제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므로 식 (3)으로부터 負債對比 資產을 감소시켜 支拂不能의 確率을 증가시키는 변수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총부채대비 기초총자산(A/L)은 보험회사의 재무레버리지, 즉 보험레버리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변수의 값이 낮아질수록 支拂不能의 危險은 커지게 된다. 총부채대비 보험료수입(P/L)의 감소는 純現金의 흐름을 감소시킴으로써 지불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투자수익률(r)의 저하, 총부채대비 지급보험료(C/L)의 증가 및 총부채대비 비용(X/L)의 증가 또한 실질적인 지급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식 (3)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생명보험회사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는 제변수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지불능력을 분석한 결과가 〈表 6〉에 나타나 있다. 90회계연도와 93회계연도의 支拂能力을 비교하여 보면 업계 전체적으로 지불능력이 약간 제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별로는 신설사 중 합작사와 외국사의 지불능력이 제고되어 가고 있음을 〈表 6〉으로부터 알 수 있으며, 특히 외국사의 경우는 지불능력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 財務構造의 健全性 회복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기존 6개사도 미미하게나마 지불능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신설사 중 순

〈表 6〉 會社別 支拂能力 分析

		기존6개사	신 설 사				전 체
			전국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	
1990	A/L	0.783	0.252	0.527	0.373	0.621	0.748
	P/L	0.503	0.894	0.790	0.834	0.419	0.531
	X/L	0.064	0.059	0.105	0.104	0.340	0.065
	r	0.125	0.089	0.098	0.110	0.171	0.124
	C/L	0.316	0.087	0.222	0.128	0.120	0.301
	M/L	0.059	0.097	0.109	0.096	−0.300	0.064
1993	A/L	0.942	0.812	0.738	0.840	0.930	0.919
	P/L	0.449	0.716	0.706	0.703	0.704	0.491
	X/L	0.068	0.139	0.111	0.129	0.272	0.078
	r	0.111	0.098	0.086	0.096	0.097	0.108
	C/L	0.402	0.444	0.363	0.441	0.216	0.404
	M/L	0.068	0.085	0.085	0.109	0.278	0.072

註 : A = 기초총자산　　r = 평균투자수익률
P = 총보험료수입　　L = 총부채
X = 사업비+재산관리비　　M = 기말사용가능자금
C = 총보험금지출

수한 국내자본의 생보사인 전국사와 지방사들은 같은 기간중 지불능력이 반대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사의 경우 지불능력의 급속한 악화를 보이고 있어 재무구조의 건전성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表 6〉으로부터 업계내에서 외국계 생보사(합작사 포함)와 내국사간에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經營態度와 努力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내국사들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經營戰略을 수정할 때 보험산업의 개방에 따른 기대효과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6. 經濟性 分析

보험을 포함한 금융업에 있어서 規模와 範圍의 經濟性의 존재여부는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이나 자금의 조달 및 공급에 있어서의 機能極大化가 대형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 존재여부를 對數線型回歸方程式을 이용한 最小自乘法으로 추정하고 범위의 경제성을 트랜스로그(translog) 費用函數를 통하여 측정하여 보겠다.

가. 生命保險産業에 대한 規模의 經濟性 分析 및 決定要因

1) 規模의 經濟性에 대한 實證分析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는 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생산비가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각 생산요소의 投入量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비례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 규모의 경제성이 있다고 정의하며, 생산함수와 비용함수간의 雙對性을 이용해서 비용에 대한 수입의 彈力性으로 규모의 경제성 여부가 파악될 수 있다. 情報의 生産, 蓄積 및 傳達을 위해서는 대규모 고정설비가 필요하며 이들은 직접 또는 노동력에 體化되어 경영효율을 제고시키고, 대규모 점포망은 고객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公信力이나 資産運用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보험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리라고 보는 이유이다. 특히 보험회사의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危險分散 및 利益提高를 위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범위의 경제와도 연결된다.

보험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 존재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費用의 대리변수로서 事業費와 財産管理費의 합계(C)를, 營業規模의 대리변수로서 保險營業收益 및 資産運用收益의 합계(TR)를 각각 사용하여 식(4)로 표시되는 대수선형회귀방정식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각 변수에 로그를 취하였기 때문에 계수 β의 추정치는 彈力性을 나타내며, 이 값이 1보다 유의하게 작으면 規模의 經濟性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text{Ln } C = \alpha + \beta \ln TR + e \quad \cdots\cdots\cdots\cdots (4)$$

〈表 7〉에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表 7〉 生命保險産業에 대한 規模의 經濟性 分析(全體業務)

	α	$\beta(t')$	R^2
1989	−0.1431	0.8085(2.3350)	0.9890
1990	0.1531	0.8055(3.3402)	0.9942
1991	0.9586	0.7659(5.9852)	0.9984
1992	0.0357	0.8437(3.4787)	0.9978
1993	0.5712	0.8115(5.6549)	0.9989
합동모형(1989~93)			
기존6개사	−2.3423	1.0090(−0.3060)	0.9999
신설사	0.8200	0.7567(6.3752)	0.9941

註 : C = 사업비 + 재산관리비　TR = 보험영업수익 + 자산운용수익　(t') : 1로부터의 차이를 측정한 t값

〈表 7〉의 분석결과를 보면 β의 추정치가 1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는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회사별로 분석하여 보면 이 기간 중 신설사는 β값이 1보다 작고 크게 유의하여 규모의 경제성이 시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市場支配者인 기존 6개사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이 시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統計的인 有意性은 낮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보험영업부문에 관한 규모의 경제성 분석을 〈表 8〉에서 시도하여 보겠다.

〈表 8〉의 분석결과는 생명보험업무 중 主業務인 보험업무에 국한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한 것이며, 〈表 7〉과 동일한 기간 및 관측치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表 8〉을 보면 업계전체적으로는 분석기간 동안 보험업무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회사별로 분리하여 분석할 때 신설사는 규모의 경제성을 시현하고 있으나 기존 6개사는 보험업무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분석결과는 앞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의 파생업무인 金融業務(資産運用業務)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하면, 기존 6개사도 매우 유의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자산운용대상에 대하여 危險分散 및 利益提高를 위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해지며, 또한 생명보험회사가 巨大機關投資家로서 자본시장에서 市場先導力을 가질 수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도 자산운용부문에서 지속적인 규모의 경제 시현이 예상되고 있는바, 생명보험회사들은 영업부문에서 불필요한 人員 및 組織을 정비하고 부수업무인 자산

〈表 8〉 生命保險産業에 대한 規模의 經濟性 分析(保險業務)

	α	$\beta(t')$	R^2
1989	1.0920	0.7027(3.3022)	0.9839
1990	2.1395	0.6425(6.5746)	0.9923
1991	1.4416	0.7294(5.9789)	0.9975
1992	0.3849	0.8199(3.7517)	0.9972
1993	0.6169	0.8114(5.2871)	0.9987
합동모형(1989~93)			
기존6개사	−2.8918	1.0558(−2.3836)	0.9999
신설사	2.2740	0.6291(10.5181)	0.9929

註 : C = 사업비 TR = 보험영업수익 (t') : 1로부터의 차이를 측정한 t값

〈表 9〉 生命保險産業에 대한 規模의 經濟性 分析(金融業務)

	α	$\beta(t')$	R^2
1989	−1.0729	0.8296(3.5516)	0.9934
1990	−0.7194	0.7925(2.0497)	0.9716
1991	0.4320	0.7012(4.2386)	0.9908
1992	−1.0539	0.8408(1.6988)	0.9835
1993	0.1290	0.7459(3.9866)	0.9923
합동모형(1989~93)			
기존6개사	1.8381	0.5991(4.4409)	0.9985
신설사	−1.3622	0.8871(1.8079)	0.9796

註 : C = 재산관리비 TR = 자산운용수익 (t') : 1로부터의 차이를 측정한 t값

운용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여 내적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2) 規模의 經濟性 決定要因

과거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産業內 進入規制 등 정부의 過保護的인 특혜를 누린 반면 각종 규제가 행해져 新商品開發, 業務領域의 擴張, 營業店鋪增設 등을 통한 효율성제고의 기회가 제한되었으며, 또한 스스로 競爭制限的인 談合行爲를 함으로써 규모에 상응하는 다양한 경영전략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규모의 경제성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營業店鋪數(NB), 代理店數(NA), 營業店鋪當 營業人力數(WB), 그리고 保險業務比重(PR)의 각 로그값을 설명변수로 하여 總收益(TR)의 로그값을 선형회귀하였다.

$$\mathrm{Ln}(TR) = \alpha + \beta \ln(NB) + \gamma \ln(NA) + \delta \ln(WB) + \eta \ln(PR) + e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5)$$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橫斷面 分析을 통한 規模의 經濟性 決定要因 분석결과를 〈表 10〉을 통하여 살펴보면, 먼저 β의 추정치가 대체로 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영업점포를 통한 店鋪政策이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업점포의 증설은 판매네트워크의 확대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保險營業收益은 비례 이상으로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γ계수의 값이 1보다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대리점을 통한 점포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 대리점을 통한 판매전략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994년 4월부터 複數代理店制度가 시행되고 있고 1997년 4월에는 獨立代理店制度가 도입될 것이므로 대리점제도에 경험이 많은 선진외국 생보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영업에 관한 經營戰略의 劃期的인 改善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989년부터 1993년 동안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사별 분석에

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업규모나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계수의 δ값은 대체로 1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어, 영업인원의 증가가 業務規模의 확대나 효과적인 經費節減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過多人力의 사용으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會社別 分析結果 기존 6개사의 경우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신설사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설사들이 事業初期 營業人員에 대한 過多한 投資에 상응하는 營業規模擴大나 費用節減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신설사들이 기존 6개사에 비해 生産性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명보험회사의 業務多邊化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계수 η는 대체로 유의하게 負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생보사들이 主業務인 保險業務에 치중하고 있고 附帶業務인 資産運用業務 등은 활발하지 못하여 업무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무는 보험영업에서의 적자를 補塡하는 가장 큰 收益源이며 타업

〈表 10〉 規模의 經濟性 決定要因 分析

	α	$\beta(t')$	$\gamma(t')$	$\delta(t')$	$\eta(t)$	R^2
1989	3.2775	1.1690 (−2.5060)	0.0909 (7.8280)	0.8352 (0.7058)	1.2885 (2.5347)	0.9987
1990	1.5845	1.1141 (−1.7204)	0.2532 (7.7698)	1.0200 (−0.1169)	−3.8499 (−1.4765)	0.9991
1991	2.7523	0.9961 (0.0503)	0.0457 (16.5176)	0.9686 (0.1458)	−7.3862 (−3.2958)	0.9994
1992	3.0432	1.0353 (−0.6029)	0.0932 (19.1698)	0.8241 (1.2931)	−6.3277 (−4.6273)	0.9997
1993	3.3777	1.1243 (−2.2473)	0.1205 (19.3574)	0.7258 (1.3300)	−2.6191 (−1.9284)	0.9994
합동모형(1989~93) 기존6개사	4.9730	0.6104 (1.5556)	0.1429 (19.0699)	1.3282 (1.0886)	−2.1930 (−2.1780)	0.9999
신설사	4.0215	1.0068 (−0.1614)	0.1372 (26.1846)	0.7678 (2.8448)	1.3643 (3.6862)	0.9988

註 : TR = 총수익
NB = 영업점포수. 단, 영업점포=영업국+영업소+지소
NA = 대리점수
WB = 영업인원 / 영업점포수. 단, 영업인=모집인+임직원
PR = 보험영업수익 / 총수익
(t) : 통상의 t 값
(t') : 1로부터의 차이를 측정한 t 값

무에 비하여 월등한 收益力을 보이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업무로의 업무다변화를 통한 수익력 제고가 요구된다. 1989년부터 1993년간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사별 분석에서 기존 6개사의 결과는 업계전체의 분석결과와 유사하여 業務多角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신설사는 업무다변화를 어느 정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初期에는 販賣體制의 미비 등으로 보험영업업무가 활발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전체업무에서 保險營業業務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여, 앞으로 보험영업업무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η계수의 부호는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나. 生命保險産業에 대한 範圍의 經濟性 分析

1) 定義 및 模型

金融産業은 기본적으로 多品目産業이다. 동시에 多品目을 생산한다면 投入된 資本과 勞動 및 中間財를 여러 생산라인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한 품목의 生産量 증가는 다른 품목의 單位生産費를 하락시키는 費用補完性(cost complementarity)이 존재하게 되어 業務多邊化의 經濟性, 즉 範圍의 經濟性이 나타나게 된다. 비용의 보완성이 있으면 동시에 범위의 경제성이 성립하므로 범위의 경제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품목생산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費用函數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多品目生産의 경우 비용함수는 규모의 경제성이 業務範圍의 經濟性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對數變換費用函數(translog cost function; TLCF)가 가장 普遍的이며 彈力的인 형태의 生産函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TLCF는 다음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mathrm{Ln}(C) = {} & \alpha_0 + \sum_{i=1}^{n}\alpha_i \ln(Y_i) + \sum_{j=1}^{m}\beta_j \ln(P_j) \\ & + 1/2\sum_{i=1}^{n}\sum_{k=1}^{n}\sigma_{ik}\ln(Y_i)\ln(Y_k) \\ & + 1/2\sum_{j=1}^{m}\sum_{h=1}^{m}\gamma_{jh}\ln(P_j)\ln(P_h) \\ & + \sum_{i=1}^{n}\sum_{j=1}^{m}\delta_{ij}\ln(Y_i)\ln(P_j) \qquad \cdots\cdots(6)\end{aligned}$$

여기서 ln은 自然對數이고, Y_i는 i生産物의 生産量, P_j는 j生産要素의 價格을, 그리고 從屬變數 C는 總生産費用을 나타낸다. 위의 式이 費用函數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요소가격 P_j에 대하여 1次同次函數(linearly homogeneous)가 되어야 하고 P_j에 대해 오목(concave)하며 Y_i와 P_j에 대해 增加函數여야 하므로

$$\sum_{j=1}^{m}\beta_j = 1, \quad \sum_{j=1}^{m}\gamma_{jh} = 0, \quad \sum_{j=1}^{m}\delta_{ij} = 0$$

의 條件을 만족시켜야 한다.

각각의 生産物을 λ배로 확대하였을 경우의 總量的 規模의 經濟性(overall economies of scale)의 尺度 η는 식 (6)을 모든 Y_i에 대해 微分하여 구한다.

$$\eta = d\ln(C)/d\lambda = \sum_{i=1}^{n}\{\ln(C)/\ln(Y_i)\}$$
$$= \sum_{i=1}^{n}\alpha_i + \sum_{i=1}^{n}\sum_{k=1}^{n}\sigma_{ik}\ln(Y_k)$$
$$+ \sum_{i=1}^{n}\sum_{j=1}^{m}\delta_{ij}\ln(P_j)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7)$$

만약 $\eta > 1$이면 生産物에 비해 費用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른바 規模의 收穫遞減(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나타나며, 반대로 $\eta < 1$이면 規模의 收穫遞增이 나타난다. 식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η는 單位變數의 함수가 아니라 生産物(Y_i)이나 生産要素價格(P_j)의 차이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生産物간의 費用補完性 또는 業務範圍의 經濟性은 식 (7)에서 α_i와 σ_{ik}係數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i \neq k$인 i, k에 대하여

$$S = \partial^2 C/(\partial Y_i \partial Y_k)$$
$$= \{C/(Y_i Y_k)\}[\sigma_{ik} + \{\alpha_i + \sum_{k=1}^{n}\sigma_{ik}\ln(Y_k)\}\times$$
$$\{\alpha_k + \sum_{i=1}^{n}\sigma_{ik}\ln(Y_i)\}] < 0 \quad \cdots\cdots(8)$$

가 성립하면 費用補完性, 즉 範圍의 經濟性이 존재한다. Y_i를 標準化된(normalized) 變數로 할 경우 이러한 조건의 近似値로서

$$S' = \alpha_i\alpha_k + \sigma_{ik} < 0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9)$$

를 사용할 수 있다.

2) 範圍의 經濟性에 대한 實證分析

保險産業에서 業務多邊化에 의한 範圍의 經濟性 달성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最小自乘法으로 식 (10)을 추정하였다.

$$\mathrm{Ln}(C) = \alpha_0 + \alpha_1\ln(Y_1) + \alpha_2\ln(Y_2) +$$
$$1/2\sigma_1\{\ln(Y_1)\}^2 + 1/2\sigma_2\{\ln(Y_2)\}^2$$
$$+ \sigma_{12}\ln(Y_1)\ln(Y_2) \quad \cdots\cdots\cdots(10)$$

지금까지의 實證的 分析을 근거로 볼 때 보험산업의 생산물을 정의하는 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여기서는 收益性 및 生産機能을 동시에 고려하여 保險料收入 및 資産運用總額을 生産物로 파악하는 模型(模型 Ⅰ)과, 生産機能을 강조하여 新契約額 및 資産運用總額을 생산물로 정의하는 模型(模型 Ⅱ), 그리고 생산물로서 總收益을 사용하여 保險營業收益 및 資産運用收益을 생산물로 규정하는 模型(模型 Ⅲ)을 각각 이용하여 생명보험산업의 範圍의 經濟性을 추정하여 보겠다. 생산물로서 각 模型에서 정의된 업무들은 生命保險事業의 營業範圍를 包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業務의 重要部門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分析變數로 사용한다. 生産物 Y의 종류가 많을수록 計測模型의 複合性으로 인해 分析의 精密度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短點을 고려해 模型의 單純化를 위해 각 模型別로 두가지 생산물 Y_1, Y_2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즉 模型 Ⅰ에서는 보험료수입 및 자산운용총액을, 模型 Ⅱ에서는 신계약

〈表 11〉 生命保險産業에 대한 範圍의 經濟性 分析(模型 Ⅰ)

	α_1	α_2	σ_1	σ_2	σ_{12}	R^2	η	S'
1989	-2.159 (-0.904)	0.936 (0.443)	-0.275 (-0.930)	-0.524 (-0.737)	0.493 (0.938)	0.995	0.796	-1.528
1990	0.136 (0.138)	-2.697 (-2.296)	0.322 (3.450)	0.295 (1.245)	-0.165 (-1.138)	0.998	0.666	-0.532
1991	2.443 (2.958)	-2.382 (-3.059)	0.670 (2.916)	1.007 (3.667)	-0.811 (-3.301)	0.999	0.787	-6.700
1992	-1.027 (-0.509)	1.087 (0.571)	0.742 (1.481)	0.420 (0.578)	-0.543 (-0.890)	0.998	0.920	-1.659
1993	-3.286 (-3.211)	2.332 (2.694)	-0.281 (-0.731)	-0.841 (-1.930)	0.641 (1.571)	0.999	0.925	-7.022
합동모형(1989~93)								
기존6개사	-7.913 (-0.930)	5.186 (0.941)	2.858 (1.279)	1.716 (1.325)	-2.150 (-1.304)	0.999	0.995	-43.187
신설사	0.703 (0.984)	-3.273 (-2.852)	-0.010 (-0.160)	0.382 (1.866)	-0.031 (-0.268)	0.995	0.891	-2.332

註 : ( ) 안은 t값.

액과 자산운용총액을, 그리고 模型 Ⅲ에서는 보험영업수익 및 자산운용수익을 생산물로 고려하였다.

1989~93년 기간동안의 資料를 이용하여 模型 Ⅰ, Ⅱ 및 Ⅲ을 분석하여 본 결과를 〈表 11〉~〈表 13〉에 제시하였다. 식 (10)에 기초한 規模의 經濟性 係數 η는 식 (11)로 표시할 수 있다.

$$\eta = \alpha_1 + \alpha_2 + \sigma_1 \ln(Y_1) + \sigma_2 \ln(Y_2) + \sigma_{12}\{\ln(Y_1) + \ln(Y_2)\} \quad \cdots\cdots\cdots(11)$$

13) η의 값이 대체로 1보다 작기 때문에 추정결과가 규모의 경제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正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α_1, α_2, σ_1 및 σ_2의 값이 陰數로 추정된 경우도 많고 계수의 추정치가 有意하지 못한 것도 많아 TLCF의 妥當性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TLCF의 推定結果를 토대로 강한 結論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식 (10)에 의하여 추정된 係數의 값과 $\ln(Y_1)$과 $\ln(Y_2)$의 평균값을 식 (11)에 대입하여 구한 η의 推定値가 각 모형별로 〈表 11〉~〈表 13〉까지에 나타나 있다.[13)]

生産機能과 收益性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모형 Ⅰ), 계수추정치들이 만족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範圍의 經濟性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요체라고 할 수 있는 σ_{12}의 값이 대체로 0보다 작을 뿐 아니라 $S' < 0$ 그리고 $\eta < 1$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에서 保險營業業務와 資産運用業務간에 費用補完性이 존재하며 이들 업무의 同時的인 확장이 규모의 경제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

〈表 12〉 生命保險産業에 대한 範圍의 經濟性 分析(模型 Ⅱ)

	α_1	α_2	σ_1	σ_2	σ_{12}	R^2	η	S'
1989	-1.334 (-0.725)	0.178 (0.115)	0.256 (0.419)	0.095 (0.138)	-0.104 (-0.166)	0.997	-0.341	0.761
1990	0.736 (1.198)	-1.341 (-3.019)	-0.092 (-1.557)	0.016 (0.102)	0.096 (0.962)	0.999	-0.891	0.744
1991	0.444 (0.879)	-1.288 (-3.189)	-0.178 (-1.899)	-0.171 (-1.848)	0.235 (2.599)	0.999	-0.337	0.759
1992	0.374 (0.641)	-0.658 (-1.565)	-0.289 (-2.101)	-0.378 (-1.665)	0.371 (2.034)	0.999	0.125	0.845
1993	-0.026 (-0.035)	-0.335 (-0.532)	-0.168 (-1.065)	-0.272 (-1.693)	0.259 (1.664)	0.999	0.268	0.854
합동모형(1989~93) 기존6개사	-13.778 (-4.439)	7.194 (3.291)	1.899 (2.256)	0.926 (1.003)	-1.214 (-1.412)	0.999	-100.333	0.872
신설사	-0.023 (-0.071)	-1.217 (-2.742)	-0.065 (-1.658)	-0.073 (-0.700)	-0.501 (-2.387)	0.998	0.178	0.777

註 : ( ) 안은 t값.

〈表 13〉 生命保險産業에 대한 範圍의 經濟性 分析(模型 Ⅲ)

	α_1	α_2	σ_1	σ_2	σ_{12}	R^2	η	S'
1989	-0.477 (-0.617)	0.694 (1.506)	-0.219 (-1.856)	-0.397 (-1.426)	0.329 (1.562)	0.998	0.820	0.002
1990	-0.092 (-0.123)	-1.084 (-1.486)	0.114 (1.659)	0.128 (0.673)	-0.027 (-0.264)	0.997	0.707	0.073
1991	-1.413 (-1.409)	0.724 (1.115)	0.231 (1.454)	-0.038 (-0.116)	-0.039 (-0.163)	0.999	0.793	-1.062
1992	-2.260 (-2.157)	2.538 (3.077)	0.319 (1.076)	-0.179 (-0.380)	-0.058 (-0.155)	0.998	0.995	-5.794
1993	-1.196 (-1.741)	-0.021 (-0.036)	-0.412 (-2.039)	-0.873 (-4.182)	0.716 (3.528)	0.999	0.874	0.741
합동모형(1989~93) 기존6개사	-11.023 (-1.653)	7.504 (1.691)	2.439 (1.793)	1.449 (1.563)	-1.808 (-1.689)	0.999	1.013	-84.525
신설사	-0.771 (-2.094)	0.531 (1.045)	-0.061 (-1.970)	-0.251 (-2.204)	-0.204 (-3.624)	0.996	0.889	-0.205

註 : ( ) 안은 t값.

여 회사별로 분석하여 본 결과도 전체 생명보험산업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회사의 規模나 年輪에 상관없이 보험업무와 금융업무간에 비용보완성 및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분석결과의 信賴性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生産機能에 중점을 둔 모형(모형 Ⅱ)에서는 각 계수추정치의 값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主業務와 附帶業務간에 費用補完性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η의 값이 1보다 작아 규모의 경제성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별 분석결과는 산업전체의 분석결과와 달리 기존 6개사 및 신설사에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收益性에 중점을 둔 모형(모형 Ⅲ)에서는 대체로 모형 Ⅰ과 동일한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어 保障業務와 金融業務간에 업무다변화의 경제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회사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會社의 規模나 營業年數에 관계없이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세가지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에서 생명보험산업 전체적으로는 생명보험회사의 主業務인 保險營業業務와 附帶業務인 資産運用業務간에 費用補完性, 즉 範圍의 經濟性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각 업무의 同時的인 확장은 規模의 經濟性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에서는 각 業務간에 費用補完性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업무인 보험영업업무에 치중한 관계로 業務의 多角化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업무다변화를 통한 內部經營의 效率性 提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업무는 타업무에 비하여 높은 收益力을 지니고 있어 자산운용으로의 업무다변화를 통한 範圍의 經濟性 提高 및 收益力 增大가 요청되고 있다.

Ⅲ. 生命保險産業의 業務改善方向

최근 들어 자율화·국제화·개방화 추세에 편승하여 보험시장의 對內·外 開放과 金融自由化 政策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험환경은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保險政策當局과 각 보험사들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헤쳐 나가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本章에서는 제Ⅱ장의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생명보험산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發展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營業收支의 改善

생명보험회사는 타금융기관과는 달리 보험료형태의 長期資金과 이를 자산형태로 운용하여 얻은 投資收益을 영업수입의 원천으로 삼고 이를 보험금지급 및 사업운용의 경비(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收入面에서 신계약의 확대로 보험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투자수익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支出面에서 사고예방과 유지율을 높임으로써 보험금지급을 줄이며 과다한 사업비지출요인을 없애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4)]

보험금지급은 93회계연도 기준으로 생보사 총지출액의 81.7%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보험의 本源的인 기능에 따라 지출되는 보험금(死亡, 傷害, 滿期, 退職 등에 따른 보험금지급)은 전체 보험금지급의 16.9%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不完全契約에 따른 效力喪失·解約 還給金 형태(총보험금지급의 74.9%)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契約의 效力이 喪失되거나 또는 解約되면 계약유치에 사용된 신계약비용의 효용은 상실되는 한편, 보험회사의 경우 豫定新契約費의 완전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어 超過事業費를 발생시킨다. 또한 실효·해약에 따른 예정신계약비의 未確保部分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약하는 소비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의 불만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높은 失效·解約率은 직접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총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큰 해약환급금을 증가시키며 간접적으로 예정사업비의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여 초과사업비를 발생시킴으로써 營業收支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효·해약은 소비자측에 사업비를 轉嫁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을 높이며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저감한다. 93회계연도의 경우 실효·해약률이 과거의 30%대의 실효·해약률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28.8%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어 실효·해약률이 10% 미만인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생명보험산업의 收支構造의 취약성을 판단하게 하며 따라서 收支構造의 개선을 위해서는 契約의 長期維持가 생명보험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에서의 높은 실효·해약률은 高인플레이션, 商品內容의 多樣性 不足, 低投資收益率 등과 연관된 생명보험상품내의 문제점과, 專門性이 결여된 募集人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不完全販賣에 근본 원

14) 93회계연도의 경우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總支出중 96.6%가 支給保險金(81.7%)과 事業費(14.9%)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營業收支의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中長期 保險의 판매를 활성화하여 維持率 제고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와 같은 新契約率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募集手當構造를 유지율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專門募集人·基幹募集人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의 '募集體系 3個年計劃'을 철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며 상품내용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變額保險(variable life insurance) 등과 같은 金融型 保險商品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競爭力을 확보함으로써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中途解約要因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2. 財務健全性의 確保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은 해당 보험사가 특정시점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의무인 보험금, 즉 부채를 변제할 충분한 자금의 확보력을 말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保險料率自由化의 확대에 따른 보험영업상의 위험증대와 資本市場의 자율화조치에 따른 투자위험 증대로 인하여 支拂不能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무건전성의 확보가 생명보험산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總體的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의 적립충실화 및 적정수준의 지불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가. 責任準備金의 充實한 積立

責任準備金은 보험회사가 保險收益者에게 장래 지급할 保險金, 還給金 및 契約者配當金 등 諸支給金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결산기말 시점에서 계상하여 적립하는 負債性 充當金으로서 保險料積立金, 未經過保險料, 支給備金, 配當準備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료적립금은 負債計定科目으로서 적립방식에 따라 손익이 크게 좌우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純保險料式을 원칙으로 적립하되, 1986년부터 최고준비금인 순보험료식과 최저준비금인 解約還給金式을 混合比例積立하는 K率方式을 도입하여 준비금의 충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현재 33개 생보사 중 기존 3개사만 100%의 K率로 적립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50%에 못미치고 있어 부채에 대한 충분한 준비금의 적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준비금적립의 충실화를 위하여 積立方式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순보험료식으로 적립방식을 갑작스럽게 강화할 경우 신계약비의 과다지출로 인한 財務的인 부담을 생보사들에게 줄 것이므로 순보험료방식의 전면적인 실시 전에 생보사의 재무적인 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주는 방법으로 미국의 保險監督官式 積立方法(com-

missioners reserve valuation method: CRVM)의 실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配當準備金은 정부의 '生命保險會社 剩餘金 및 再評價積立金 處理指針'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確定配當準備金, 契約者配當準備金, 總額契約者配當準備金 등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확정배당준비금은 영업결과와 관계없이 全額積立이 강제화되어 있는 반면, 死差·利差·長期維持配當에 대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완전히 적립되기 전 配當前剩餘金의 일부가 株主持分으로 확보되어 契約者 持分이 적을 경우 충분히 적립될 수 없다. 그리고 擔保力의 확보에 있어서도 配當前剩餘金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만 資本金增額 등을 통한 담보력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계약자배당준비금이 불충분한 회사에 대한 담보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배당을 위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확보는 계약자배당의 결정에 앞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생명보험상품의 價格自由化政策에 따라 계약자배당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충분한 확보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有價證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이고 자본시장의 개방 및 자율화에 따라 有價證券投資危險도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바, 주식투자위험과 같은 非常危險에 대한 準備金을 신설하여 責任準備金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 87년에 폐지된 非常危險準備金의 부활이나 미국의 有價證券評價準備金(mandatory security valuation reserve: MSVR)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適正水準의 支給餘力 確保

생명보험사업은 그 특성상 損失의 측정과 현금흐름의 예측이 비교적 용이하며 준비금이 保守的으로 적립되는 관계로 과거에는 2次的인 支給餘力의 확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投資危險이 커지고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립만으로는 支給不能의 可能性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흡수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緩衝裝置로서 지급여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부채성격인 保險契約準備金에 대한 支給餘力을 나타내는 순자산의 비율은 93회계연도에 8.05%로 사업규모에 비하여 낮아 현재의 지급여력 수준으로는 보험영업상의 손실이나 자산운용상의 손실에 대한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향후 본격적인 개방에 따른 과열경쟁과 금융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험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지불능력의 확충을 위한 업계전

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급여력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구체적인 方案으로는 지금까지의 準備金充實化라는 소극적인 재무건전성 제고전략을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불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保險金支給의 最終準備金으로서의 資本金 增資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保險引受節次의 강화로 보험금지급의 漏水 현상을 줄여 수입보험료대비 지급보험료 비율의 축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의 효율적인 절감을 통한 수익성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보험사업과 相關關係가 높은 투자종목에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支拂不能(insolvency)의 確率(純資產 確率分布의 分散)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15] 그리고 현재 一律的으로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 지급여력기준을 수정하여 總負債水準이나 資產의 危險水準을 고려하여 差等化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여력의 構成要素에 未實現利益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급여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計量化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競爭力 提高

가. 價格自由化

생명보험은 보험 특유의 保障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貯蓄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貯蓄性 生命保險商品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금리자율화와 더불어 보험상품과 타금융상품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의 劃一的인 가격체제로서는 국내생명보험산업이 타금융권이나 외국생보사와의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보험회사 경영의 合理化를 도모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93년 12월 價格自由化計劃을 예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6]

保險產業의 效率性 提高 및 對外競爭力 強化를 위하여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保險商品 價格自由化計劃'은 두가지 점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단계별 가격자유화계획은 供給者 爲主의 價格政策으로 全體 市場參與者의 效用極大化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지 못한 문제점을

15)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업비의 감소 등 費用支出의 減少는 수익성을 개선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언더라이팅비용의 감소는 언더라이팅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지급보험금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販賣施策費의 감소는 판매량의 감소, 계약의 質的 弱化 및 收益力의 減退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비용의 절감은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效率的인 事業費 節減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6) 생명보험상품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경쟁요소인 가격은 豫定利率, 豫定危險率 및 豫定事業費率에 의하여 결정되며, 配當附保險인 경우 계약자배당까지를 포함한다. 현재 생명보험상품의 豫定利率·豫定危險率·豫定事業費率은 '生命保險의 保險料算出 基礎指針'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은 '契約者配當準備金 積立 및 配當에 관한 指針'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둘째, 보험시장에서는 價格의 決定變數가 되는 被保險者의 損失確率에 관하여 情報의 非對稱性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금융산업과는 다른 시각에서 가격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타금융산업에서 사용한 정책방향의 틀을 그대로 원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타금융산업의 상품가격은 資金의 需要·供給 原則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반하여 보험상품의 가격은 大數의 法則(law of large numbers)을 근거로 한 위험발생확률이 기본적인 가격결정변수가 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위험확률에 대한 정보는 가격산출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보험시장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不完全競爭市場이기 때문에 타금융산업과는 다른 시각에서 가격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가격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가격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시장내에 상존하고 있는 情報의 非對稱性을 고려하여 모든 시장참여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17]

나. 資産運用의 效率化

자산운용업무는 長期性負債인 자산이 資産運用基本原則(安全性, 收益性, 流動性, 多樣性, 公共性)의 테두리 안에서 보험계약자의 受惠範圍를 확대시키며 회사의 재무건전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效率的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현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制度改善方案이 제시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최대한의 給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收益率 제고가 요구되나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수익률은 金利水準, 資本市場의 收益率水準,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있다. 이는 정부가 公共性 위주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자산운용에 自律性을 제한한 데 기인하고 있다. 또한 不實 系列會社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한 不實資産의 保有도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고 재무상태나 운용결과에 대하여 事後的인 健全監督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金融環境의 변화에 따라 각종 投資危險이 증대되고 있는바, 投資對象別 리스크헤지 기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연금보험의 판매로 들어오는 長期資金의 효율적인 運用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자산운용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公共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社會福祉分野에 대한 投·融資를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貸出偏重의 자산운용에서 탈피하여 直接金融의 공급을 통하여 자본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17) 保險産業의 價格自由化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羅東敏(1994)을 참조.

政策的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契約者利益 保護

가. 適正한 解約還給金 水準의 規制

생명보험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緣故募集과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契約者와 非專門的인 募集人간에 이루어지는 不完全保險契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자의 불이익에 있다고 여겨진다. 계약자는 中途解約을 할 경우 해약에 따른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며, 이중 해약환급금은 未償却 新契約費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經過期間이나 納入期間이 短期일수록 解約時 미상각 신계약비가 대부분 控除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短期貯蓄性保險 중심의 판매와 불완전판매에 의한 높은 失效·解約率을 고려할 때 解約還給金制度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해약환급금의 料率決定에 사용되는 豫定 新契約費는 계약자이익보호측면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예정신계약비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적정한 해약환급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틀을 마련하여 계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생명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維持率을 높이기 위하여 募集人制度의 整備와 約款의 透明性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契約者配當의 單純化와 配當情報 提供의 圓滑化

보험상품의 實質價格은 配當 등에 따라 事後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자배당은 계약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계약자배당제도는 매우 복잡하여 계약자가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配當의 自律化는 계약자의 이해도가 높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배당의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金利差配當, 利差配當, 長期維持特別配當은 모두 利差配當의 성격이므로 單一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死差配當의 자율화에 따라 회사별 死差損益分析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死差配當率을 결정할 수 있도록 基準을 統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配當內容에 관한 情報의 제공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타금융상품 또는 타생보사상품과의 比較可能性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계약자의 이익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험의 특성상 保守的으로 책정되어 超過徵收되고 있는 보험료의 還拂(配當)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豫示하도록 유도하여 계약자의 價格豫測力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회사간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配當豫示時 配當水準을 회사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 分離計定의 導入

配當附商品은 그 성격상 스스로의 自立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稅制支援, 長期性, 大規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個人年金이나 투자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金融型 保險商品의 경우, 전통적인 생명보험상품과 분리하여 分離會計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負債의 分離計理뿐만 아니라 資産의 분리계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公示制度의 改善 및 契約者의 私的情報 保護

價格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보험이용자의 價格比較能力이 높아져야 하고 이에 따라 보험이용자의 보험회사 選擇能力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積極的인 공시사항과 自律的인 공시사항을 분류하여 공시의 迅速·圓滑·透明性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의 基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계약자의 私的情報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취득된 身上情報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制度的인 裝置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要約 및 結論

과거의 政府規制 위주의 금융정책은 實物經濟를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경제규모의 성장과 시장개방 및 경제 각 부문에서의 자율화 진전은 실물경제의 급속한 선진화를 이룩하였고 이에 따라 과거 실물경제를 선도하여 왔던 금융은 실물경제에 비하여 落後性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산업이 本然의 機能을 회복하고 對外的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體質改善 및 先進化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산업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價格, 商品, 資産運用 등 경영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 自律性을 도입하여, 效率性을 제고하며 競爭力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本 論文을 통하여 도출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문제점은 낮은 收益力, 低生産性, 財務構造의 不健全性, 非效率的인 資産運用, 契約者保護裝置의 未備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收益力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收入面에서 新契約의 확대로 보험료수입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投資收益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支出面에서 過多한 사업비지출요인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中長期保險商品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募集手當體系를 新契約率이 아닌 維持率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계약유지의 充實度를 높여 失效·解約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을 낮추어야 한다.

둘째, 생보산업의 낮은 生産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經營戰略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90년 이후 생보산업의 생산성은 저하되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성의 저하는 생보산업이 低成長期에 진입하면서 수입보험료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다가 開放 이후 시장규모에 비하여 많은 회사가 난립하여 과열경쟁으로 사업비의 지출이 급속히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國際競爭力을 갖추기 위하여 生産資源의 효율적인 投入과 생산물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內國新設社들의 店鋪當 生産性이 낮아지고 있어 店鋪政策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財務構造의 健全性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향후 保險料率自由化의 확대에 따른 보험영업상의 위험 증대와 資本市場의 자율화조치에 따른 투자위험 증대로 인하여 支拂不能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는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總體的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責任準備金의 적립충실화 및 적정수준의 支拂能力 확보가 필요하다. 책임보험금의 적립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純保險料式의 責任準備金積立의 전면적인 실시를 長期的으로 계획하여야 할 것이나, 갑작스러운 적립방식의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過渡期的으로 미국의 保險監督官式 積立方式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2次的인 支拂餘力의 강화를 위해 현행 지급여력 기준을 개선하고, 지급여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計量化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과 비교하여 낮은 資産運用率 및 收益率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自律性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고, 재무상태나 운용결과에 대한 事後的인 健全監督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規模 및 範圍의 經濟性 分析結果에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서는 각 業務간에 費用補完性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업무에 치중한 관계로 業務의 多角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業務多邊化를 통한 內部經營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금융산업과의 衡平性과 보험산업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주어진 범위내에서 自律的인 業務取扱이 최대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消費者保護主義(consumerism)의 강화와 보험산업의 開放化·自律化에 따른 無限競爭時代를 맞이하여 契約者利益保護次元에서 解約還給金制度 및 募集人制度 등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타금융상품이나 타생보상품과의 比較可能性을 높이고 이에 따른 利用者의 利益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配當制度의 整備 및 公示制度의 改善이 있어야 한다.

▷ 參 考 文 獻 ◁

金東勳, 「우리나라 保險會社의 支拂能力 監督制度의 改善에 관한 硏究」, 『保險學會誌』, 제44집, 韓國保險學會, 1994.

羅東敏, 「保險産業의 價格自由化에 관한 硏究」, 『韓國開發硏究』, 제16권 제2호, 韓國開發硏究院, 1994 여름.

保險監督院, 『保險統計年鑑』, 各年度.

生命保險協會, 『生命保險統計年報』, 各年度.

_____, 『生命保險事業分析報告書』, 各年度.

李永琪・崔範樹, 「證券業의 規模와 範圍의 經濟性에 대한 實證分析」, 『韓國開發硏究』, 제11권 제4호, 韓國開發硏究院, 1989 겨울.

李在亨・劉承旻, 「大事業體와 財閥事業體의 成長과 生産性」, 『韓國開發硏究』, 제16권 제3호, 韓國開發硏究院, 1994 가을.

財務部, 「保險商品 價格自由化 方案」, 政策解說資料, 1993.

左承喜, 「企業集團의 金融兼業構造分析을 통한 金融産業의 所有構造政策方向 摸索」, 『韓國開發硏究』, 1994 겨울.

_____, 「우리나라 銀行産業의 效率性分析과 制度改善方案」, 『韓國開發硏究』, 1992 여름.

崔鍾元, 「公企業民營化의 政策效果分析에 관한 硏究」, 『韓國開發硏究』, 제16권 제1호, 韓國開發硏究院, 1994 봄.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1993 Life Insurance Fact Book*, 1993.

Cummins, J. D., "Risk-Based Premiums for Insurance Guaranty Funds," *Journal of Finance*, September 1988, pp. 823~839.

Geehan, R., "Returns to Scale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Bell Journal of Economics*, Autumn 1977, pp. 497~514.

Kellner, S. and G. F., Mathewson, "Entry, Size Distribution, Scale and Scope Economies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March 1983, pp. 25~44.

Lamm-tennant, J., "Asset /Liability Management for the Life Insurer: Situation Analysis and Strategic Formulation,"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September 1989, pp. 501~517.

Mester L. J., "Efficiency in the Savings and Loan Industr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April 1993, pp. 267~286.

Praetz, P. D., "Returns to Scale in the U.S.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September 1980, pp. 523~533.

Smith, M., "The Life Insurance Policy as an Options Packag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December 1982, pp. 583~601.